



3면

"尹정부,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

# 전주매일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음 7월 5일)

제35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체감온도 35도 이상... 도내 '가마솥 더위' 지속 도, 폭염 피해 최소화 비상 대응체제 가동 중

무더위쉼터·폭염저감시설 운영 상태 점검 나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김관영 지사, 도내 건설사업장에 중대재해예방 당부

전북자치도가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 지역은 지난달 20일부터 19일째 폭염 특보가 지속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를 오르내리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30일 폭염 대응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도 상황실에서 20명의 인력이 된더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된더위에 비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서는 8월 6일까지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11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된 상황이다.

가축 피해는 총 5만8,610두 수가 피해를 입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 4,161, 닭 5만 3,706, 오리 743두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 2만3천여 명을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반과 노숙인시설 5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내 지정된 실내의 무더위쉼터 6,039개소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정 실내 온도(26~28℃)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 저감 시설 1,534개소를 활용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폭염으로부터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와 주요 위치에 얼음 생수를 보급하기 위한 양심 냉장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도로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현재까지 도내 13개 시·군에서 723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총

1만1,199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전광판,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폭염 특보 시 기상청과 협력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폭염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축산 및 농업 분야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폭염 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1,573개소 건설사업장에 서한문을 보내 폭염 근로자들에게 중대 재해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폭염 예방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대한간학회 권영오 회장, 김형준 총무이사, 이주형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형간염 치료를 향상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관계를 맺었다.

## C형간염 치료율 향상 '맞손'

전북자치도, 대한간학회와 협약... 건강서비스 증진 시너지

전북특별자치도는 C형간염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간학회를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대한간학회 권영오 회장, 김형준 총무이사, 이주형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형간염 치료율 향상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관계를 맺었다.

전북자치도와 대한간학회는 앞으로 △C형간염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 및 예방 강화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안내를 통한 건강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2023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전북

지역에서 C형간염을 진단받은 환자 320여 명의 치료 실패를 면밀히 파악하고, 미 치료자에 대한 치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력관계로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C형간염 치료율 향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건강서비스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C형간염 치료 제도 기반 구축과 치료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는 방침이다.

대한간학회 권영오 회장은 "내년부터 C형간염은 국가검진에 포함돼, C형간염 진단과 함께 치료에 돌입하는 것

이 중요해졌다"며, "C형간염은 진행이 느리지만,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으로 이행되고, 감염인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그러면서 "C형간염은 2-3개월 비교적 짧은 기간 먹는 약으로 치료해 완치될 수 있어 치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 사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C형간염 미치료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 '천연기념물' 된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군산시(시장 김임준)의 영육을 오랫동안 함께 해온 노거수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오래된 자연물인 노거수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과 깊은 연관성, 우수한 규모와 아름다운 모양,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군산 하제마을은 군산시 옥서면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 1900년대 초부터 간척사업을 통해 섬에서 육지가 된 곳이다.

이 마을은 한때 2,000여명이 거주할 정도로 큰 마을을 이뤘지만, 군산시 설이 들어서며 마을 주민들이 떠나

현재는 팽나무만이 홀로 마을을 지키고 있다.

2020년 한국임업진흥원의 수령 조사 결과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2020년 537(±50)살로 추정되어 생장 추로 수령을 확인한 팽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드론으로 촬영한 하제마을 팽나무.

규모 역시 나무 높이 20m·가슴높이 둘레 7.5m로 장대한 외형을 자랑하며 수령 역시 매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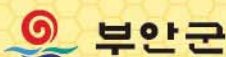
특히, 하제마을 팽나무는 마을에 향기가 생기고 기차가 들어서며 번성하던 모습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사라져간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뛰어난 역사적 가치 덕에 하제마을 팽나무는 2021년 6월에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예고는 팽나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팽나무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안전한 지구를 위해 꼭!! 기부하세요!

## 부안고향사랑기부



###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www.ilovegy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포함)

문의 063-580-4938



홈페이지 바로가기